

전북의병 관련 자료의 현황과 과제*

임진·병자 의병을 중심으로

문경득**

목 차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조선시대 전북의병 관련 자료의 현황 | 참고문헌 |
| 3. 조선시대 전북의병 관련 향후 과제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외세에 맞서 싸운 전북 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한 논문, 단행본, 문집, 사료 등을 정리한 목록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전북의병은 전북 출신이거나 전북에서 거주하던 인물로 의병활동에 나선 인물로 한정하여 463명의 명단을 정리하였다. 다만 전북의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라도 전반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성과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사업에서 정리한 관련 문헌 중에서 전북의병과 관련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전북의병 인명을 색인으로 삼아 한국학자료를통합플랫폼에서 검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201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연구성과가 증가했으나 2020년대에는 연구자가 줄어들어 연구성과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쟁으로부터 160년 이상 지난 뒤에 기록된 사료가 전체의 74%로, 후대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

* 이 논문은 2024년 전북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전북의병의 현안과 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E-mail: 2003kd@naver.com

째, 사료는 의병활동의 중요성과 별개로 특정 인물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연구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에 앞서 사료비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탈민족, 탈지역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념사업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기관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둘째, 전북의병의 범주를 확대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연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 전북특별자치도, 의병, 연구사업, 기념사업, 탈민족주의, 탈지역주의

1. 서론

의병(義兵)은 사전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¹⁾ 혹은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병사”²⁾를 의미한다. 특히 임진왜란의 경우, 전쟁 직전에 군사제도가 붕괴되어 관군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초기 의병의 활약이 크게 강조되었다.³⁾ 그렇기에 1960년 이래 임진의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⁴⁾ 지역이나 가문 혹은 학통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⁵⁾ 이중 전라도 지역 혹은 전라도 출신으로 활동한 의병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⁶⁾ 반면 청나라의 침략으로 일어난 정묘·병자전쟁은 전쟁이 빠르게 진행되어 의병이 참전할 여지가 적었으므로 임진왜란에 비하면 연구가 적고,⁷⁾ 절의록이나 창의록 등의 자료를 근거로 연구가 진행되었다.⁸⁾ 전북의

1) 『표준국어대사전』

2) 『고려대한국어대사전』

3) 조원래, 2012,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158~160쪽; 계승범, 2012,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서강인문논총』 33, 6~7쪽.

4) 임진의병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조원래, 2000,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김강식, 2005, 『임란시 의병전쟁』,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계승범, 2009, 『임진의병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선인; 노영구, 2012,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 13; 정해은, 2012,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김경록, 2016,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등 참조.

5) 정해은, 앞의 논문, 5~6쪽.

6)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지역 의병 연구에 관한 연구사 정리는 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참조.

의병에 관해서는 1990년에 전북향토문화연구회가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과 정묘·병자호란 등을 포함해 여러 국난의 시기에 활동한 의병을 정리해 『전북의병사』상을 펴내기도 했다.⁹⁾

다만 전반적으로 전북 의병에 대한 관심이나 기념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병을 기념하는 시설은 소충사, 백정기의사 기념관, 일광기념관, 전해산기념관 등이 있다.¹⁰⁾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2022년 개관한 보성의병기념관이나 예산 422억을 들여 2025년 말에 개관 예정인 나주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에 비하면 규모와 예산 면에서 비교가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에서도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역사적 사건인 의병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연구원은 2024년부터 『전북의병사』를 디지털화하여 시·군 문화원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고, 전북의병과 관련된 신규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북 의병 교육 사업 및 전북 의병 유적 발굴 등을 수행하고 있다.¹¹⁾ 또한 2024년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자료 목록화 및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전북의병에 대한 계승과 기념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의병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헤쳐 나가야 할 문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라의병 관련 연구사는 이미 학계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 차례 정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북의병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북특

7) 이창희, 1974, 「丁卯丙子胡亂義兵攷」, 『건대사학』 4 이후 지역별 인물별로 간간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묘·병자의병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김종원, 1997, 「정묘호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 이창희, 1997, 「병자호란」, 같은 책 참조.

8) 권수용, 2011, 「『丙子倡義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 ; 류창규, 2011, 「丙子胡亂과 湖南義兵」, 『남도문화연구』 21 등 참조.

9)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전북의병사』 상, 전라북도.

10) 이병규, 2005, 「호남지방의 의병·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의 재조명 - 전북을 중심으로」, 『향토사연구』 17, 10~11쪽 참조. 이 외에 남원 만인의총의 경우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의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로, 이 전투 자체는 관군이 주축이 되어 전투를 벌였으므로 순수한 의병 기념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전북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2차년도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2025.04.03.) ; 전북의병사 홈페이지(<http://jbrighteousarmy.re.kr>)

별자치도 의병운동 자료 목록화 및 계획 수립 연구』의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임진·병자의병 관련 자료의 현황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¹²⁾

2. 조선시대 전복의병 관련 자료의 현황

1) 임진왜란~병자호란 시기 전복의병의 설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복의병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병이 맞선 대상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북향토문화연구회에서 전북 지역 의병을 집대성하여 펴낸 『전복의병사』에서는 창의록이나 절의록을 참조하여 외적에 맞선 의병 이외에도 이괄의 난이나 이인좌의 난처럼 반란군에 맞선 사례도 모두 의병에 포함시키고 있다.¹³⁾ 실제로 조선시대 당시에 통용되던 의병의 용례로 볼 때, 반란 진압에 협력한 사례도 의병이 맞다. 오히려 국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군병을 의병이라 부른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였다.¹⁴⁾ 그러나 학계는 물론 의병기념사업의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대적 관점에서 ‘외적’에 맞서 싸운 의병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도 외적에 맞선 의병으로 한정하였다.

맞서 싸운 대상이 외적으로 정해지면 시기적 범위 또한 임진왜란(1592)부터 병자호란(1636)까지로 한정된다. 즉, 조선시대에 외적이 쳐들어온 경우는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청(후금)이 쳐들어온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총 4차례의 전쟁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적 범위의 경우, 전라도 의병의 특성으로 인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임진왜란 초기의 의병은 대체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반면, 전라도 의병은 왜군의 침입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창 의한 ‘군왕의병(勤王義兵)’였다. 그래서 전라도의 의병은 전라도라는 넓은 범

12)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자료 목록화 및 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정리된 목록의 일부가 2025년 8월 현재 전북의병사 홈페이지에서 『전복의병사 관련 자료·논저 목록집』이라는 제목으로 서비스되고 있다(<http://jbrighteousarmy.re.kr/ebook/ecatalog5.php?Dir=5>). 다만 e-book의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의 일부 정보가 제외되었으며, 전복의병 명단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13)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전복의병사』 上·下, 전라북도.

14) 계승범, 2012, 앞의 논문.

위에서 집결해 경기도나 충청도, 경상도로 넘어가 활동했다.¹⁵⁾ 이로 인해 전라 의병의 근거지는 전라도 전역에 걸쳐있으며 활동 영역은 전라도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나주의 김천일(金千鎰)을 중심으로 일어나 북상하여 수원·강화 등지에서 활동했는데, 그 구성원으로는 나주 출신 외에 남원, 순창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다.¹⁶⁾ 또한 고경명(高敬命)과 함께 담양에서 회맹을 주도한 양대박(梁大樸), 양사형(楊士衡) 등도 남원과 순창 지역 출신이었다. 즉, 의병 구성원은 광주와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도 중부 21개읍에 분포하고 있었다.¹⁷⁾ 그렇기에 전북 출신 혹은 전북에 살던 인물이라는 조건과 전라북도라는 활동 범위가 겹치는 인물만 전북의병으로 한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찰 행정구역을 벗어난 인물까지 기념하기에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과보고서에서는 지역적으로 활동의 범위와 상관없이 전북 출신이거나 전북에서 거주하던 인물을 전북의병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전북 의병은 ‘왜란과 호란 당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로서 전북지역 출신이거나 전북지역에 거주하던 인물로 한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병활동의 대상과 시간적·지역적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존에 정리된 『전북의병사』나 절의록에서 전북의병에 해당하는 인물을 추려냈다. 예컨대 관직 없이 백의(白衣)로 왕 또는 세자를 호종하거나, 이정란(李廷鸞)처럼 지방관(또는 현직)으로 의병을 조직하고 군량미를 모집하여 타 지역 전투에 참전한 경우, 대사성에서 퇴임했다가 의주(용만)까지 호종한 김청(金淸)이나 유배 중 웅치전투에 참전한 김진태(金振兌)와 같은 사례, 남원 이명세(李名世)처럼 참전하지 못하고 군량미만 지원한 경우도 의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현직에서 있으면서 전투에 참전했거나, 호종 시 승지·선전관 등의 현직 관료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부분 제외하였다. 특히 무과에 급제한 무신은 대부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고 의병에서 제외하였다.

15) 조원래, 2012,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앞의 책.

16) 조원래, 2012, 『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198~199쪽.

17) 조원래, 2012, 『고경명의 의병운동과 제1차 금산성전투』,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176~178쪽.

다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전쟁의 대상과 기간이 다르고 의병활동의 성격 또한 다르므로 임진의병과 병자의병은 서로 기준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임진의병의 경우, 임진왜란은 조선 전체가 침공을 당한 침략전쟁이었으나 정유재란은 전라도가 침공의 주목적으로 설정되어 훨씬 타격이 컸다. 이로 인해 전라도 의병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근왕의병, 정유재란 당시에는 향보의병(鄕保義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그렇기에 근왕의병이라는 기준에서 임진왜란 초기에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피난 과정에 기여한 오희길(吳希吉)과 안의(安義) 등도 의병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직접적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으나, 조선왕조실록을 수호한 공 또한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을 물리친 것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고, 또한 이를 지키고자 경계하고 번을 섰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군사활동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병자의병의 경우, 병자호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전북지역에서는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인 곳이 없으므로, 의병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여하려 가던 도중에 강화(講和) 소식을 접하고 해산하거나 창의(倡義)만 한 경우도 의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타 지역 출신 인물로 의병 활동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북 지역과 관련이 적은 인물도 제외하였다. 예컨대 『전북의병사』에서 참고한 『호남삼강록』은 범례에서 “충신, 효자, 열녀는 본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도내에서 순절하거나 자손이 본도에 옮겨 살고 있으면 그 아래에 주석으로 표주(標註)하고 그 인물을 수록하였다.”¹⁹⁾라고 하여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후손이 전라도에 살고 있으면 수록했다. 이로 인해 장수군에 후손이 많이 거주하는 김충선(金忠善), 『명심보감』의 편자인 추적(秋適)의 후손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가 조선에 귀화하여 전주에서 사망한 추수경(秋水鏡) 등도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임진·병자 의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바로잡거나 추가로 추출하기도 했다. 예컨대 기존 『전북의병사』나 사전류에서는 이희량(李希良)이 임진년에 쌀 200포를 명나라에 군대에 지원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희량의 행록에 따르면 이희량은 임진년 당시 9세였다.²⁰⁾ 따라서 이 사실은 부친 이명세(李名世)의 행적에 해당하며, 실제로 『호남절의록』에서도 “아버지 한성판관 명세(名世)는 임진란 때 쌀 200석을 명나라 군사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이유(李

18) 정해은, 앞의 논문, 19~20쪽.

19) “忠孝烈, 雖非本道之人, 或殉節在於道內, 或子孫移寓本道, 則其下標註入錄.”

20) 『兪知府君行錄』, 『大明居士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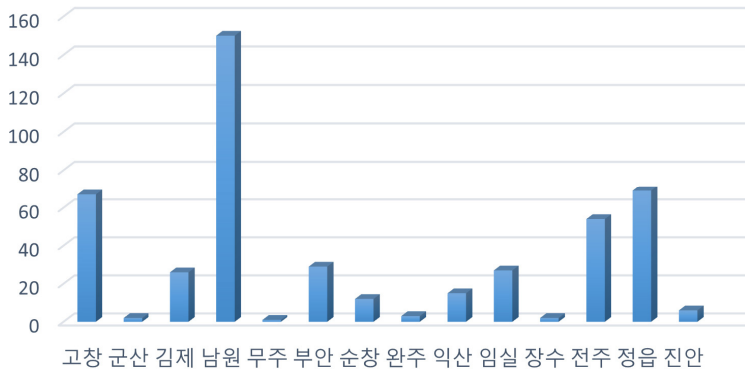
瑜)는 영광 태생이나 부안에 거주하여 활동했으며, 김익복(金益福)은 남원 태생으로 1592년 능성 현령으로 의병을 모집하였으므로 전북 의병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 인물을 서술하면서 의병 활동에 함께한 부자, 형제, 친척 등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항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는 따로 분리하였다. 예를 들어 유여굉(柳汝宏)에 관한 기록에 의거하여 유여녕(柳汝寧)을, 김언춘(金彦春)에 관한 기록에 의거하여 김화주(金華柱), 김필중(金弼重)을 추가로 전북의병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리한 임진·병자 시기 전북의병의 의병 인원은 총 463명이다. 이를 현재 지명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전북 의병의 지역별 인원

지명 (현재)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합계
의병 인원	67	2	26	150	1	29	12	3	15	27	2	54	69	6	463



〈그림 1〉 임진~병자시기 전북 의병의 지역별 인원

조선시대 지명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지역별 인원(조선시대 지명 기준)

지명 (현재)	고창 (67명)		군산 (2명)		김제 (26명)		남원 (150명)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15명)		임실	장수	전주	정읍 (69명)		진안	합계					
지명 (조선)	고창(高敞)	무장(茂長)	흥덕(興德)	옥구(沃溝)	임피(臨陂)	금구(金溝)	김제(金堤)	만경(萬頃)	남원(南原)	운봉(雲峯)	무주(茂朱)	부안(扶安)	순창(淳昌)	고산(高山)	여산(礪山)	용안(龍安)	익산(益山)	함열(咸悅)	임실(任實)	장수(長水)	전주(全州)	고부(古阜)	정읍(井邑)	태인(泰仁)	진안(鎭安)	
의병 인원	18	31	18	1	1	3	20	3	146	4	1	29	12	3	3	3	8	1	27	2	54	26	1	30	6	463

지역적으로 남원의 숫자가 가장 많다. 이는 남원 출신으로 양대박 등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여했거나 정유재란 당시 남원이 격전지였다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묘·병자호란 당시에도 의병을 일으키려 했던 이들 또한 다수가 확인된다.

이상에서 맞서 싸운 대상과 시기적·지역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리한 463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병이라는 범주로 기념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북 임진·병자의병 관련 자료 현황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정리한 전북의병 463명의 인명을 기초로 전북의 임진·병자의병 관련 자료를 논문, 단행본, 문집, 사료로 구분해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논문과 단행본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출간된 연구서 등 근대적 방식에 따라 연구되고 출판된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문집은 의병활동에 참여한 전북 출신 혹은 전북에 거주한 인물의 문집이나 이러한 전북의병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집류로, 전통적 방식으로 편찬된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기에 근대 이후에 출간되었어도 전통적 방식으로 편찬되었다면 문집류로 분류하기도 했다. 사료는 의병과 관련된 고문서와 같은 기록이나 한국학통합플랫폼에서 인명으로 검색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문제는 학계의 의병 연구는 대체로 전라도 지역 전반을 다루는데 반해, 의병 기념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근대적 행정구역이라는 경계로 인해 일정하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전라도의 의병은 전라도 전역에서 일어나 근왕의병으로서 경기와 경상도로 넘어가 활동하기도 했다. 예컨대 1592년 10월과 1593년 6월에 벌어진 두 번의 진주성 전투는 전라도 의병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전투이다. 최경희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전라우의병은 제1차 진주성전투를 외부에서 지원하기도 했으며,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전사하였다.²¹⁾ 임계영이 주도한 전라좌의병의 일부는 김천 일을 중심으로 구성된 나주의병과 함께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 진주성을 지키다가 전사하였다.²²⁾

21) 조원래, 2012,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앞의 책, 164쪽, 166~167쪽 ; 조원래, 2012, 『전라우의병과 최경희 일가의 의병운동』,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 임진관정신문화선양회, 240. 243쪽.

22) 조원래, 2012, 『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 앞의 책, 209~218쪽 ; 조원래, 2012,

진주성 뿐만 아니라 현 충청남도 금산군 지역 또한 전라도 의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592년 7월 당시 고경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담양회맹군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제1차 금산전투가 벌어진 장소이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이 지역은 1962년 충청남도로 편입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을 벗어났다.²⁴⁾

이처럼 전라의의병은 전라도 전역에서 모여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 활동했기 때문에 전북이라는 지역적 범주를 적용해 전북의병에 관한 자료만 별도로 선정하기 쉽지 않다. 물론 기존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나 성과가 아예 없지는 않다. 전북향토문화연구회에서는 전북 지역 의병을 집대성하여 1990년에 『전북의병사』 上·下를 펴내기도 했고, 하태규는 전라도 북부 지방에서 전개되었던 창의활동을 관군, 의병, 호종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거나,²⁵⁾ 정유재란기 전라도 북부 지역의 의병활동을 고찰하기도 했다.²⁶⁾

그렇지만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전북의 인물이면서 전북 내에서 의병으로 활동한 경우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전북 의병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 목록에서 제외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전북의병과 전북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했지만, 부득이하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범위를 고려해 선정한 전북의병 463명 이외에 전라도 의병의 주요 인물과 관련된 자료 또한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과 관련된 자료 조사는 부득이하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기존의 연구 사업에서 정리된 임진왜란·정유재란 관련 연구성과 목록²⁷⁾ 중 전북의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연구성과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폭넓게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에 앞서 기준에 맞춰 추출한 전북의병 인명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북의병과 관련된 자료를 탐색하여 정리하였다.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앞의 책, 166~167쪽.

23) 조원래, 2012, 『고경명의 의병운동과 제1차 금산성전투』, 앞의 책, 181~186쪽.

24) 금산 지역에 의병장 조헌(趙憲)과 승군장 영궐(靈圭)가 8월에 일본군과 맞선 제2차 금산전투를 기념하는 시설로 칠백의총(七百義塚)이 있지만 전라북도 출신 의병의 활동과 관련이 적다.

25)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全北人의 倡義活動 -<湖南節義錄>의 分析을 中心으로-』, 『全羅文化論叢』 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26) 하태규, 1999,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 -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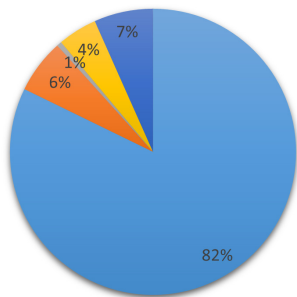
27) 예를 들어 『전북 임진왜란·정유재란 호국전적지 재조명 사업수립 연구』(2019) 등을 참조하였다.

이상을 통해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과 관련된 논문 180편, 단행본 48건, 문집 53건, 사료 975건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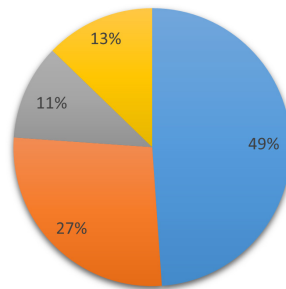
〈표 3〉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자료 현황

	논문	단행본	문집	사료
건수	180	48	53	975

연구논문 180건을 대상시기별로 보면 임진의병에 관한 논문이 148건(82%)으로 가장 많으며 직접 전라도가 공격당한 정유 의병 관련 논문도 11건(6%)이다. 그 외에 병자의병 관련 논문이 8건(6%), 정묘의병 관련 논문이 1편(1%), 기타 논문이 12편(7%) 등이 확인된다.



■ 임진 ■ 정유 ■ 정묘 ■ 병자 ■ 기타
〈그림 2〉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연구논문 시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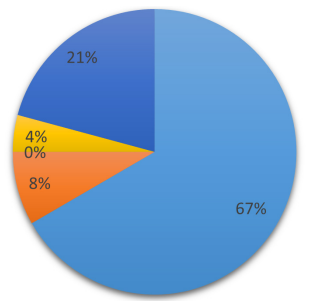
■ 전체 ■ 개인 ■ 전투 ■ 기타
〈그림 3〉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연구논문 주제별 분석

연구논문을 주제별로 보면 전북 임진·병자의병의 활동양상을 전라도 전체 또는 각 지역별로 다룬 연구가 88건(49%)이고, 의병장 개인중심의 연구는 49건(27%), 의병이 참여한 전투에 관한 연구는 20건(11%), 기타 주제는 23건(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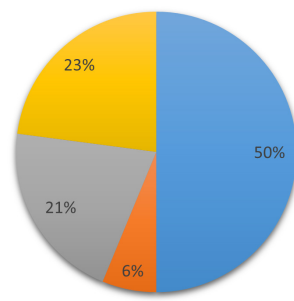
이중 의병장 개인 연구는 전라북도 출신은 아니지만 전북의병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라남도 지역 출신 의병장에 대한 연구도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김천일에 관한 연구가 6건, 김제민에 관한 연구가 4건, 조현에 관한 연구가 4건이며, 연구성과 2건이 확인되는 인물은 고경명, 박춘무, 안방준, 처영, 최경희 등이다. 이외에 25명에 대해서는 각 1편씩 연구논문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 활약한 휴정, 유정 등이 승려를 이끌고 의병을 일으킨 사례를 연구한 의

승군 관련 연구가 13건이다. 의병이 참여한 전투에 관한 논문은 주로 격전지였던 웅치, 이치, 남원성전투 관련 연구가 18건을 차지한다.

단행본의 경우 총 48건으로, 대상시기별로 보면 임진의병에 관한 저서가 32건(67%), 정유의병을 다룬 저서가 4건(8%), 병자의병을 다룬 저서가 2건(4%), 기타 10건(21%)으로 역시 임진의병에 관한 저서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전북의병사』처럼 전북의병 전체를 다룬 단행본과 『도곡실기(桃谷實記)』처럼 전북 의병의 행적을 기록한 개인문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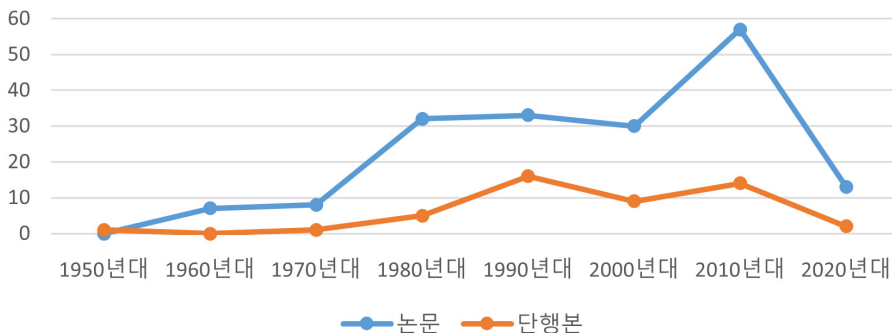


〈그림 4〉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단행본 시기별 분석



〈그림 5〉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단행본 주제별 분석

단행본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임진·병자의병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24건(50%), 의병이 참여한 웅치·이치·남원성·금산 전투를 다룬 저서가 10건(21%), 의병 개인을 다룬 저서가 3건(6%), 기타 11건(23%)이다. 이중 기타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의승군(義僧軍), 개인 문집, 인물자료집 등이다.



〈그림 6〉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연구성과 연도별 분석

이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시기적으로 임진왜란을 다룬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주제별로 임진·병자의병의 활동 전체를 다루는 연구가 많으며, 전투는 웅치·이치·남원성 전투에 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승군의 기반과 활약을 다룬 성과가 눈에 띈다.

이상에서 정리한 전북의 임진·병자의병 관련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종합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점진적으로 연구가 증가했으며, 연구논문의 경우 특히 2010년대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와 2023년까지의 연구성과가 논문 13건, 단행본 2건으로 2010년대의 논문 57건, 단행본 14건에 비하면 반절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대의 연구성과는 수량면에서 2010년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논문과 단행본의 저자를 확인해본 결과, 2010년대에 활동했던 연구자는 24명, 관련 단체는 2곳인데, 2020년대에는 연구자 11명과 단체 1곳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중 2010년대부터 계속 활동한 연구자는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전북 의병 관련 연구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에 연구성과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인다.

문집은 총 53건으로 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문집류를 정리하였다. 이중 의병 개인이 직접 창작하거나 당사자의 행적이 중심이 되는 기록이 34건이며 의병 활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집은 19건이다. 의병 개인이 남긴 문집류는 의병 개인의 행적 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삶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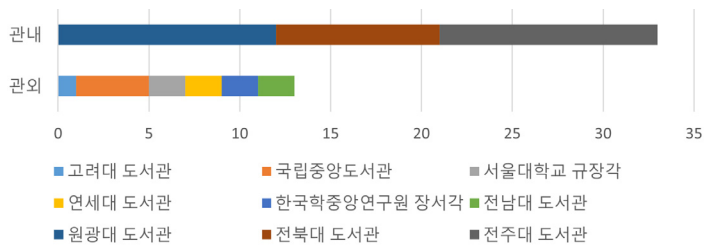
이러한 문집 53건 중 소장처가 확인되는 경우는 45건인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 외부 기관에 소장된 건수는 13건이며 도내 기관에 소장된 건수는 33건으로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후 ‘(가칭)전북의병기념관’ 등 전북의병 관련 기념시설을 설립해 운영하고자 한다면 의병장이나 의병 참여자의 문집 원본 같은 유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문집 중 현전하지 않는 『금릉유고』, 『운억일고』 등 8건은 저작되어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추후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 찾아낼 필요가 있다.

사료의 경우, 임진·병자의병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전북의병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라도 의병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 방법을 일부 달리했다. 즉, 앞서 선정한 전북의병 463명을 포함해 전라도 의병의 주요 인물도 색

인어로 포함하여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사료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표 4〉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문집류 소장처

관외		관내	
고려대학교 도서관	1	원광대학교 도서관	12
국립중앙도서관	3	전북대학교 도서관	9
서울대학교 규장각	2	전주대학교 도서관	12
연세대학교 도서관	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전남대학교 도서관	2		
합계	12		33



〈그림 7〉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문집류 소장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작성된 목록은 추후 전북의병 연구나 『전북의병사』 개정 작업을 진행할 때 의병 관련 정보 및 활동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색인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또한 전산화된 자료의 경우 URL까지 첨부하여 차후 활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14개의 색인어에 대해 총 975건의 기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송기면(宋基冕)이 지은 『유재집(裕齋集)』에 수록된 안징, 유극효, 유희현, 이유 등에 관한 기사처럼 검색으로 찾을 수 없어 직접 자료를 읽어 추출한 자료 11건도 포함되어 있다.

사료의 기사는 전북 임진·병자의병과 관련한 고신(告身), 교지, 간찰, 분급문서 등의 고문서와 각 고을의 읍지와 『호남절의록』 등의 여러 절의록 외에 『난중잡록』, 『쇄미록』 등의 잡록류 중 전북의 임진·병자의병과 관련된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단, 접근이 쉽고 널리 알려진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검색 결과는 목록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이를 작성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병자창의록』(1798)과 『호남절의록』(1799)가 편찬되기 전까지 사료 건수는 약 306건이며, 『병자창의록』에서는 29건, 『호남절의록』 197건이 등장한다. 이후 1800년부터 1909년까지는 약 295건, 1912년부터 현대까지 128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료가 약 20건으로 나뉜다. 이중 『병자창의록』과 『호남절의록』이 편찬되면서 임진·병자의병에 관해 정리한 기사가 226건으로 전체 사료의 23%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병자창의록』은 병자호란으로부터 163년, 『호남절의록』은 임진왜란으로부터 208년, 병자호란으로부터 164년이 지난 뒤의 기록이다. 즉, 1798년 이후의 기록을 모두 합치면 723건으로, 74%의 기록이 사건으로부터 160여 년 이후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사료비판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료를 색인어별로 살펴보면 검색결과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색인어는 인명으로 그 외의 색인어는 전라의병이 타 지역에서 활동한 전투인 광교산 전투 4건, 금산싸움 1건으로 확인되었다. 색인어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인명 가운데 가장 검색 결과가 많은 색인어 10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임진~병자시기 전복의병 색인어별 사료 검색결과 현황

인명	조경남	백광언	황정직	이정란	안영	양대박	정염	이기발	이상형	황박	합계
검색 결과수	65	63	52	47	42	28	25	21	20	20	383

이 10명의 인명에 총 383건의 검색결과가 확인되어 전체 대비 39%의 사료가 상위 10개 색인어에 집중되어 있었다. 검색결과가 10건 이상 검색되는 색인어로 범위를 넓히면 23명의 인명 검색어로 566건의 검색결과가 확인된다. 이는 전체 검색결과 51%에 해당한다.

반대로 사료 검색결과수에 따라 색인어의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임진~병자시기 전복의병 사료 검색결과수별 색인어 현황

검색 결과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9	20	21	25	28	42	47	52	63	65
색인어 수	96	33	27	13	10	3	4	2	2	4	2	2	2	1	1	2	2	1	1	1	1	1	1	1	1

즉, 사료 1건만 확인할 수 있는 색인어가 96건, 2건을 확인할 수 있는 색인어는 33건 등 5건 이하의 검색결과가 확인되는 색인어는 179건으로 전체 색인어의 83%였다. 게다가 전체 인명 색인어 463건 중 214건만 검색결과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료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병으로서 명성이나 활동의 중요성과 사료의 빈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경명과 함께 활동한 남원 출신 양대박 관련 사료는 28건, 고경명을 지원하고 정유재란 때도 활동한 순창의 양사형 관련 사료는 8건이 확인된다. 오히려 『난중잡록(亂中雜錄)』의 저자인 남원 출신 조경남(趙慶男) 관련 사료가 65건,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남원 출신 황정직(黃廷稷) 관련 사료가 52건, 고경명 휘하에서 활동하다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남원 출신 안영(安瑛) 관련 사료가 42건, 남원을 근거로 의병활동을 지원한 남원 출신의 정염(丁焰) 관련 사료가 25건, 병자호란 때 인조를 호종한 남원출신 이상형(李尙馨) 관련 사료가 20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 현직에 있었거나 다른 지역 출신이라 의병 명단에서는 제외하였지만, 간접적으로 전북의 의병활동과 관련있는 사료도 같이 검색되고 있다. 즉, 병자호란 당시 근왕병을 일으킨 남원의 이기발(李起洸) 관련 자료가 21건, 정묘호란 때 호소사, 병자호란 당시 근왕병에 참여하여 용인에서 전사한 충남 직산 출신 황박(黃珀) 관련 자료가 20건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료의 빈도수는 일부 인명 색인어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빈도수가 의병 개인의 활동 중요성과 관련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색인어로 나타나는 인명도 214건으로 전체 의병 명단 463명에 비하면 50%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이 끝난 이후에 160여년 이상이 지난 뒤에 생산된 사료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사료의 발굴과 정리가 더 필요하며, 사료 이용에 있어 사료비판 또한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 전북의병 관련 향후 과제

이상에서 전북 의병과 관련된 자료를 논문, 단행본, 문집, 사료로 구분하여 양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더해 조사에 참여한 경험을 토

대로 조선시대 전복의병과 관련하여 연구 관련 과제와 기념사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연구 관련 과제

이상의 분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전복의 임진·병자의병 관련 연구가 2020년대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원인은 전복의병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전복의병 관련 연구 지원을 주관할 전담기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지원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번째는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다. 비록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외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자 민간인들이 군대를 스스로 조직한 사례에 주목했지만, 이처럼 국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군병을 의병이라 부른 사례는 조선왕조 전체를 보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병 개념은 민족적 극복사관에 기반해 정의하고 있다.²⁸⁾ 게다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정체성이 약화되고 있고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병활동에 대한 찬양은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점차 외면받을 소지가 크다. 그렇기에 탈민족, 탈국가, 탈지역의 경향을 충분히 숙고하는 방향으로 의병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⁹⁾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해외 연구와 자료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전쟁 당사자인 일본측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고³⁰⁾ 그중 의병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³¹⁾ 다만 이러한 연구 또한 여전히 자국사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이런 해외 연구성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삼국이 객관적으로 동의할수 있는 연구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병과 관련된 사료를 엄격히 비판하여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28) 계승범, 2012, 앞의 논문, 25쪽, 30~32쪽.

29) 계승범, 2012, 앞의 논문, 30~31, 33쪽.

30) 김경록, 앞의 논문, 104~108쪽.

31) 김경록, 앞의 논문, 105쪽 각주 60번 참조.

다.³²⁾ 예컨대 전라도 지역 의병활동에 관한 기본자료인 『호남절의록』의 경우, 사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양대박이 운암 장곡에서 왜군을 무찔렀다는 『양대사마실기』의 기록 또한 다른 사서나 일본 측 기록에도 관련 근거가 없어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앞서 분석한 것처럼 전북 의병에 관한 사료의 상당수가 당대가 아닌 후대에 생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조선시대부터 연고주의나 지역주의의 개입에 의한 왜곡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대 이후 지방자치제도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³³⁾ 즉, 연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개인을 선양하는 연구만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사료를 검증하면서 탈민족, 탈국가, 탈지역적 관점에서 의병을 연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전담 기관의 설립 혹은 설치와 연구지원이 중요하며, 후술하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연계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외부 압력에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해 서비스하고, 해외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기념사업 관련 과제

전북의병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관할 전담기관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설정하거나 혹은 이를 담당할 기관의 설립을 통해 진행할 기념사업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2025년에 완공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경우, 2020년에 조례 제정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되었다(<표 7>).³⁴⁾ 또한 예산 93억(국가 보조금 50%)을 들여 2007년 개관한 뒤 매년 30억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등을 보면 의병기념사업을 주관하는 기념관 등의 전담기관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의병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정해은, 앞의 논문, 15~16쪽.

33) 하태규, 2015, 앞의 논문, 92~95쪽.

34) 김만호, 「남도의병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JNI 이슈리포트』 제9호(2023.12.13.)

〈표 7〉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설립 과정

- 2020년 6월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정
- **2020년 10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1년 5월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문제부 사전평가 통과
- 2021년 8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통과
- 2021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박물관 건립) 도의회 승인
- 2021년 12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국토부 사전검토 완료
- 2022년 1월 국제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9명)
- 2022년 4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비전체계를 수립하여, 비전을 “전북 의병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전북자치도의 정체성 확립”이라 설정하고, 목표를 ‘전북 의병 연구 “RE:LIGHT(재점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전북 의병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화’를 제시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전북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기관의 성격과 조직의 역량, 예산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기관으로, 연구본부 산하 14개 팀 중 문화·스포츠산업팀 산하의 전북학연구센터가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학연구센터는 전북의병 뿐만 아니라 전북학이라는 넓은 범위를 담당하고 있으나 4명 중 3명이 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학연구센터가 전북의병기념사업을 전담해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전남처럼 의병을 전문으로 하는 기념관 혹은 박물관을 세우는 방법도 현안이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첫째,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서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전담하는 방법이다. 전북의 경우,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의 희생자를 기리는 만인의총이 존재한다. 이 만인의총을 담당하는 문화재청 산하 만인의총관리소에서는 만인의총 역사문화관 등의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³⁷⁾ 이 만인의총이 비록 순수하게 의병만을 기념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정유재란 당시 남

35)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2차년도 착수보고회』 발표자료(2025.04.03.).

36) 전북연구원 홈페이지(<http://www.jthink.kr/>) 및 전북학연구센터 홈페이지(<http://jbstudies.re.kr/>)를 참조함.

37) 만인의총관리소 홈페이지(<https://www.khs.go.kr/agapp/main/index.do?siteCd=MANIN>)를 참조함.

원성전투는 전북 의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기관이 전북의병 기념사업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도립박물관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 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에서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담당하는 방법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도립박물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 중 일부인 전북의병만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전북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도립박물관과 같은 문화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에서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병의 활동도 전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전북의병 기념사업 전담기관이 있어야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떠한 방식이든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전북의병의 범주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논개처럼 순절하거나 절개를 지키며 자결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외적의 침략에 저항하는 사례도 기려야 한다. 즉, 외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는 사례 이외에 이러한 저항활동 또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북의병 기념운동의 범주를 군사적인 의병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저항활동을 함께 기릴 필요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북의병은 분명 전라도 의병 활동의 일부이므로, 근대 이후의 행정구역을 근거로 구분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즉, 임진·병자 당시에는 전라남북도도 가리지 않고 의병에 참여하여 활동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전라남북도 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걸쳐있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사례나,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가 함께한 『전라도천년사』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임진·병자시기의 의병활동을 기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라도 의병의 출신을 전북과 전남으로 나누지 않고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념하고, 전라도 밖에서 의병이 활동한 장소인 금산전투와 진주성전투 등을 기리기 위해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에 이르는 시기에 외세의 침략에 맞선 전북의병의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귀중한 역사의 일부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왔고 이를 정리한 연구사 논문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전북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고전문학연구원이 수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자료 목록화 및 계획 수립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전북의 임진·병자의병에 관한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의병의 개념과 종래의 연구를 참조하여 전북 지역 의병의 범위를 설정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에서 당시 외적에 맞서 싸우고자 창의한 의병활동에 중점을 두고 전북의병 463명을 선정하였다.

다만 전북의병은 크게 전라도 의병이라는 범주로 활동하였으며 근왕의병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에 한정하면 오히려 전북의병의 활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북의병에 관한 연구 이외에 전라도 의병활동에 관한 자료도 포함해야 했다. 이에 기존 연구사업에서 정리한 목록 중 전북의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전북의병의 인명을 색인어로 삼아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등에서 자료를 검색해 추가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임진·병자시기 전북의병 관련 자료로 논문 180건, 단행본 48건, 문집 53건, 사료 975건을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해보면 첫째, 사건의 규모나 기간 등의 특성상 임진의병에 관한 자료가 병자의병에 관한 자료보다 많았다. 둘째, 주제별로 보면 의병활동 전반을 다루는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 등, 세부적인 주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셋째, 201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연구성과가 증가했으나 2020년대에는 연구자가 줄어들면서 연구성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사료의 경우, 시기적으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후 160년 이상 지난 뒤에 기록된 경우가 723건으로 전체 사료의 74%에 해당해 사료비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료의 경우 의병으로서의 명성이나 활동의 중요성과 별개로 특정 인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와 관련해서 첫째, 전북의 임진·병자의병 관련 연구성과의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북의병의 연구 방향은 시대흐름에 맞추어 탈민족, 탈국가, 탈지역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전북의병 관련 연구는 엄격한 사료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주관할 기관의 설립과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전북의병 전담기관의 설립이 어렵다면, 만인의총관리소처럼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거나 도립박물관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고 여기서 전북의병 기념사업을 전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북의병의 범주를 확대해 군사적인 의병활동 이외의 저항도 함께 기릴 필요가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과 연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의 연구는 전북의병 관련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적인 분석에 더해 질적인 분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은 차후 전북의병 기념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大明居士遺稿』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90, 『전북의병사』 上·下, 전라북도.

김만호, 2023.12.13., 「남도의병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 『JNI 이슈리포트』 (9).

전북연구원, 2025.4.3., 「『전북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2차년도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 <https://kdp.aks.ac.kr/>

전북의병사 홈페이지, <http://jbrighteousarmy.re.kr>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think.kr/>

전북학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jbstudies.re.kr/>

만인의총관리소 홈페이지, <https://www.khs.go.kr/agapp/main/index.do?siteCd=MANIN>

계승범, 2009, 「임진의병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선인.

계승범, 2012,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서강인문논총』 33,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7쪽.

권수용, 2011, 「『丙子倡義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4(2), 역사문화학회, 195-228쪽.

김강식, 2005, 「임란시 의병전쟁」,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김경록, 2016,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언」, 『군사』 1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7-118쪽.

김종원, 1997, 「정묘호란」,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노영구, 2012,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 13, 한일군사문화학회, 175-202쪽.

류창규, 2011, 「丙子胡亂과 湖南義兵」, 『남도문화연구』 21,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81-301쪽.

이창희, 1974, 「丁卯丙子胡亂義兵攷」, 『건대사학』 4, 건국대학교 사학회.

이창희, 1997, 「병자호란」,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정해은, 2012,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 조원래, 2000,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 조원래, 2012a, 「고경명의 의병운동과 제1차 금산성전투」,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 조원래, 2012b, 「김천일의 의병활동과 그 성격」,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 조원래, 2012c,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 조원래, 2012d, 「전라우의병과 최경희 일가의 의병운동」,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 하태규, 1989, 「임란기에 있어서 全北人의 倡義活動-〈湖南節義錄〉의 分析을 中心으로-」, 『全羅文化論叢』 3,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하태규, 1999, 「丁酉再亂期 全羅道 지방의 義兵活動에 대하여-全羅道 北部 地方의 義兵活動을 中心으로-」, 『韓日關係史研究』 10, 한일관계사학회.
- 하태규, 2015, 「임란 호남의병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59, 호남사학회, 65-103쪽.

<Abstract>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Righteous Army in Jeonbuk State

Focusing on the Volunteer Army from the Imjin War(1592-98) to the
Byeongja Invasion(1636)

Mun, Gyeong-deuk*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Righteous Army in Jeonbuk refers to a group that voluntarily fought against foreign aggression from the Imjin War(1592-1598) to the Byeongja Invasion in 1636. Jeonbuk State has also enacted an ordinance in 2022 and is to promote a project commemorating the Righteous Army movement. As part of the commemorative initia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collection of papers, books, writings, and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the activities of the Righteous Army in Jeonbuk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o outline future tasks based on this analysis.

Righteous Army in Jeonbuk consisted of individuals who were either born in or had resided in Jeonbuk and who participated in volunteer military activities. However, to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ighteous Army in Jeonbuk, it is essential to organize research findings on militia activities throughout the entire Jeolla Province. Therefore, from the related literature compiled in previous research projects, materials unrelated to the Righteous Army in Jeonbuk were excluded, and searches were conducted in the Korean Studies Data Platform(kdp.aks.ac.kr) using the names of Righteous Army members from Jeonbuk as keywords.

The findings revealed several key points: First, although research output gradually increased until the 2010s, both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the volume of research output are expected to decline during the 2020s. Second, the historical materials recorded more than 160 years after the two wars are likely to have been distorted by subsequent generations. Third, the historical materials predominantly focused on specific individuals, thereby, overshadowing the significance of volunteer army activities.

*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in Korea, Jeonju University

Accordingly, the following tasks have been proposed for the research sector. First, active support for research is essential. Second, historical criticism should precede any research efforts. Third, research must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s of post-nationalism and post-regionalism. In the section concerning the commemorative project, the following tasks were outlined.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institution and a comprehensive master plan is necessary. Second,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category of the Righteous Army in Jeonbuk and to promote research and commemorativ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Key Words : Jeonbuk State, Volunteer army, Research projects, Commemorative projects, Post-nationalism, Post-regionalism

